

메시지 4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성경: 계 1:9-2:1, 7

I.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이기는 이들에 관한 책이다 — 계 1:1, 3, 2:7, 11, 17, 26-28, 3:5, 12, 20-21, 21:7, 22:18-19, 12:11.

A.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이들의 총체이다.

1. 이기는 이들은 다가올 시대, 곧 천년왕국 시대에 있을 새 예루살렘, 곧 영원 안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전신(前身)일 것이다 — 계 2:7, 3:12.

2. 영원 안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이기는 이일 것이다 — 계 21:7.

B.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건축하고자 하시는 것은 시온, 곧 이기는 이들이다 — 요 14:1, 시 51:18, 102:21, 128:5, 135:21, 사 41:27, 율 3:17.

C. 그리스도의 이기는 신부의 구성 요소가 되기 위해서(계 19:7),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계시되신 그리스도)과 예수님의 증거(증언하는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있다 — 계 1:2, 9-20, 19:10.

2.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받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 — 계 1:10, 13상, 비교 4:2, 17:3, 21:10.

II.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대제사장으로 서(계 1:13),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시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신다.

A. 사람의 아들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의 상징이다.

1. 그리스도는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 교회들을 산출하는 신성한 일을 위해 강화되셨지만(출 28:4, 단 10:5), 지금은 가슴에 띠를 띠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산출하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

2.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이 금에 속한 힘이 교회들을 보양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발휘되고 솟구쳐 남을 상징한다.

B.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심으로 보살피고 계신다 — 계 1:13상.

1.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여 정돈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 출 30:7, 비교 시 42:5, 11.

a.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리의 존재를 보살핌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씻음과 격려를 준다.

b.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보살피는 분위기를 누림으로 생명의 보양하는 공급을 받을 수 있다 — 엡 5:29, 비교 딤후 4:6, 엡 4:11.

2.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들의 심지를 다듬으심으로, 우리가 빛 비추는 것을 좌절시키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잘라 내신다 — 출 25:38.

a. 심지의 검게 탄 부분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옛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려야 하는 것들을 상징한다.

b.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차이점(악행과 결점과 실패와 결함들)을 잘라 내심으로,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서 교회들을 똑같이 되게 하신다 — 비교 고전 1:10, 고후 12:18, 빌 2:2.

C. 그리스도는 가슴에 띠는 금띠로 상징되듯이,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보양하신다 — 계 1:13하.

1.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이기는 이들이 된다.
2. 거닐고 계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각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시며,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을 손질하시고 신선한 기름, 곧 그 영의 공급으로 채우신다 — 계 2:1, 7.
3.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봄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각지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III. 주님의 하늘에 속한 장구(長久)함은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과 눈같이 희다는 것으로 묘사된다 — 계 1:14, 단 7:9, 욥 15:10, 비교 아 5:11.

IV. 주님의 일곱 눈은 불꽃과 같으며, 지켜보고, 감찰하고, 살피며, 빛 비춤으로써 심판하고,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 — 계 1:14, 5:6, 단 10:6.

- A. 일곱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있어서 완성을 위한 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곱 눈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운행하심을 위한 것이다.
- B.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주로 그분의 심판을 위한 것이다 — 단 7:9-10, 계 2:18, 19:11-12.

V. 주님의 발은 용광로에서 제련된 빛나는 놋쇠와 같은데, 이것은 주님의 완전하고 빛나는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신성한 심판을 집행할 자격을 갖추셨음을 상징한다 — 계 1:15, 겔 1:7, 단 10:6.

VI.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계 1:15, 비교 14:2), 이 소리는 우레와 같은 소리, 곧 엄숙하고 장엄한(비교 계 10:3),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겔 1:24, 43:2).

VII. 그리스도는 교회들의 밝은 전달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 — 계 1:16상, 20.

- A. 전달자들은 교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이들, 곧 예수님의 증거를 책임지는 이들이다.
- B. 별들과 같이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니고 하늘에 속한 위치에 있는 전달자들은 주님께에서 신선한 메시지를 받아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들이다 — 계 2:1상.
- C. 인도하는 이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위축되어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증거를 책임지신다.

VIII.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이 칼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분별하고 심판하며 죽이는 그분의 말씀이다 — 계 1:16하, 히 4:12, 엡 6:17.

IX. 그리스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과 같은데(단 10:6), 이것은 심판을 위해 빛을 비추며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 계 1:16하, 마 17:2, 비교 말 4:2, 사 5:31, 마 13:43.

X.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결코 그분의 일을 완성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들을 살아 있고 신선하며 강하게 만드는 살아 계신 분이시다 — 계 1:17-18상.

XI.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 계 1:18하.

- A. 죽음은 모으는 것이고, 음부는 가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 버리셨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다 — 딤후 1:10, 행 2:24.
- B.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기를 훈련함으로, 주님께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행동하실 수 있는 입지와 기회와 길을 드리지만 한다면, 죽음과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 마 16:18, 21-26.